투어 번호
LKGEY9WQ9M

낙천의 주간 (7일)

7일 · 6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7일 투어는 전용 차량과 기사 가이드를 통해 스리랑카의 문화 삼각지대, 산악 지역, 남서쪽 해안을 하나의 루프로 연결합니다. 공항에서 담불라와 시기리야로 향한 후 폴론나루와의 고대 도시들과 미너리야의 코끼리 사파리를 경험하고, 캔디와 누와라 엘리야 주변의 차 재배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베토타 해변으로 내려가 갈레 요새 방문과 출발 전 콜롬보 시내 투어로 마무리합니다.

주요 하이라이트는 시기리야 바위 요새 등반, 폴론나루와 유적지 산책, 미너리야 국립공원에서의 야생 코끼리 지프 사파리, 람보다의 가이드 차 공장 투어, 캔디의 sacred tooth relic 사원, 코sgoda 거북이 부화장, 갈레의 옛 네덜란드 요새 등입니다. 마탈레 근처의 향신료 정원, 캔디 문화 공연, 칠라우의 힌두 사원 방문 등이 이동 중 문화 콘텐츠를 더합니다.

이 투어는 서두르지 않은 안정적인 페이스로 진행되며, 대부분의 날에는 1~2개의 주요 방문지가 예정되어 있고 도착 시 호텔에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고고학, 차 재배 산악 지역, 야생동물, 해안을 직접 여행 일정을 계획할 필요 없이 처음으로 폭넓게 경험하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적합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담불라 → 시기리야

콜롬보 공항에 도착하면 전용 기사 겸 가이드를 만나 담불라로 이동하며, 가는 길에 칠라우에 잠시 들른 후 저녁에는 석굴 사원을 방문합니다.



문네스와람 사원

칠라우 인근에 위치한 이 사원은 적어도 1000년경부터 존재해온 중요한 지역 힌두 사원 단지입니다. 라마야나와 그 영웅왕 라마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며, 이 지역에 있는 시바 신을 모신 다섯 개의 고대 사원 중 하나입니다.

Leon Meerson · CC BY-SA 2.0



담불라 석굴 사원

담불라의 황금 사원 석굴은 기원전 1세기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며, 부처의 생애를 그린 벽화와 함께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수백 개의 불상과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왕의 석굴, 대왕의 석굴, 그리고 대신 사원이 포함됩니다. 석굴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서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2 시기리야 → 폴론나루와 → 민네리야 → 시기리야

오늘은 고대 폐허 도시인 폴론나루와를 탐험하고, 오후에는 민네리야에서 코끼리를 찾아 사파리를 즐기는 일정입니다.



폴론나루와

스리랑카의 두 번째 주요 고대 수도로,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영을 누렸습니다. 주요 유적으로는 갈 비하라, 와타다게, 연꽃 욕조, 랑카틸라카 사원, 그리고 폴론나루와의 황금기로 여겨지는 통치를 펼친 파라크라마바후 왕과 관련된 석상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민네리야 국립공원

공원의 관목지와 숲을 가로지르는 3시간짜리 지프 사파리입니다.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15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한 자리에 모이는 '엘리펀트 개더링'이 열리며, 이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3 시기리야 → 마탈레 → 캔디

오전에는 시기리야 바위 요새를 오르고, 이후 마탈레 인근의 스파이스 가든을 거쳐 캔디로 이동합니다. 저녁에는 전통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서기 5세기에 세워진 이 바위 요새는 카샤파 왕의 거처였습니다. 오르는 길에는 거대한 사자 발 모양으로 장식된 입구를 지나며, 이 입구가 바위의 이름(시기리야, '사자의 바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색이 바래지 않은 고대 벽화와 계단식 정원, 지금도 사용 가능한 저수조를 지나 터널을 통과하면 정상의 궁전 유적에 도달합니다.

Wrobell · CC BY-SA 3.0



스파이스 가든

스리랑카의 향신료 수도로 불리는 마탈레 인근의 향신료 및 약초 정원을 가이드와 함께 둘러봅니다. 고수, 고추, 계피, 카다멈, 육두구 등 다양한 작물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가이드가 각 향신료와 약초의 용도, 그리고 아유르베다의 원리를 설명해줍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캔디 전통 문화 공연

불 춤꾼, 칼 춤꾼, 그리고 북소리에 맞춰 춤추는 캔디 무용수들이 선보이는 1시간 동안의 전통 캔디 예술 공연입니다. 저녁에는 보석 세공, 목공예, 바틱 염색 시연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4 캔디 → 누와라엘리야 → 캔디

고산 지대로 떠나는 하루 여행으로, 람보다 인근의 차 농장을 방문한 후 누와라엘리야 시내를 둘러보고 저녁에 캔디로 돌아옵니다.



람보다 차 공장

실제로 운영되는 차 농장을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며 발효, 압연, 건조, 절단, 체질, 등급 분류 등 차 제조 과정을 설명받습니다. 주변 밭에서 찻잎을 따는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시음 시간과 실론 차의 역사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Adbar · CC BY-SA 3.0



람보다 폭포

차 농장으로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스리랑카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입니다.

A.Savin · FAL



누와라엘리야

이 고산 마을은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던 휴양지였습니다. 그 시절의 별장과 저택, 코티지가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으며,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과 퀸 빅토리아 공원, 그레고리 호수 같은 녹지 공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5 캔디 → 벤토타

해안으로 떠나기 전, 오전에는 캔디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사원을 방문합니다.



불치사(佛齒寺)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사원은 16세기에 부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붉은색, 크림색, 검은색으로 장식된 복도와 홀, 조각된 기둥과 황금 불상들이 사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A.Savin · FAL

Day 6 벤토타 → 갈레 → 벤토타

오전에는 해변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는 거북이 보호소와 오래된 요새 도시 갈레를 둘러봅니다.



코스고다 거북이 부화장

스리랑카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 부화장은 스리랑카 해안에 알을 낳으러 오는 멸종위기 바다거북 5종의 둥지를 보호하여 새끼 거북의 생존율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새끼 거북과 보호 중인 부상당한 성체 거북을 직접 보고, 때로는 만지거나 먹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갈레 요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식민 시대에 지어진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입니다. 요새 안에는 박물관과 등대, 그리고 네덜란드 시대의 이름이 남아 있는 돌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7 벤토타 → 콜롬보 → 공항

마지막 날에는 콜롬보에서 도시 관광과 쇼핑을 즐긴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합니다.



콜롬보 시내 투어

옛 등대, 옛 국회의사당, 갈레 페이스 호텔, 갈레 페이스 그린, 국립 박물관 등 수도의 유서 깊은 명소들을 둘러보는 투어입니다. 또한 독립 광장과 레이스 코스 지역, 다양한 부티크와 디자이너 매장에서 쇼핑도 즐길 수 있습니다.

Gihanud2001 · CC0

포함 사항

포함

- Private Transport with airport transfers in an Air-Conditioned Vehicle throughout the tour. (2010 and Above Manufactured)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r Guide.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
- Tips & Portages.
